

#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sup>1</sup>, 오은주<sup>2\*</sup>

<sup>1</sup>부산과학기술대학교, <sup>2</sup>진주보건대학교

##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Impulsiveness on Deviant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yeong Sook Jeong<sup>1</sup>, Eun Ju Oh<sup>2\*</sup>

<sup>1</sup>Dpar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nce and Technology

<sup>2</sup>College of Nursing, JINJU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이 일탈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B시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 Scheffe test 사후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평균  $2.50 \pm 0.62$ 점, 충동성은 평균  $1.94 \pm 0.41$ 점, 일탈행위는 평균  $1.27 \pm 0.40$ 점이었으며, 일탈행위는 지각된 스트레스( $r=.40, p<.001$ ), 충동성( $r=.35,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학교생활 만족도였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일탈행위 설명력은 22.9%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일탈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고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impulsiveness, and deviant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same.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92 high school students from April 16 to April 30, 2020.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on the SPS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core of the participant's adjustment to their perceived stress level was  $2.50 \pm 0.62$ , impulsiveness level was  $1.94 \pm 0.42$  and deviant behavior level was  $1.27 \pm 0.40$ . Deviant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 $r=.40, p<.001$ ), and impulsiveness ( $r=-.35, p<.001$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deviant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perceived stress, impulsiveness, and school lif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2.98%. Based on these findings, to lower the deviant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ajor stressors of high school students, help them to be satisfied with school life, and develop a program for this purpose.

**Keywords** : Deviant, Behavior, Perceived Stress, Impulsiveness, High School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Eun Ju OH(Jin Ju Health College)

email: eun-ju218@hanmail.net

Received March 25, 2022

Revised May 6, 2022

Accepted June 3, 2022

Published June 3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발달 전환기로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선택, 자아실현과 인격 성숙 등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시기로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발달과제의 부담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과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아정체감 결여, 갈등과 욕구불만 등으로 일탈 행동이나 비행행동 같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1,2]. 현재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며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계 문제 등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개인 욕구와 사회적 요구 조절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3]. 일탈은 도리나 윤리 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제도화된 행동강령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맞지 않는 행동 성향을 말한다[4]. 청소년기의 일탈행위는 우울, 불안, 무기력감, 은둔, 인터넷 중독, 폭력성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5]되어 주로 학교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교칙위반, 교권침해, 무단결석, 기물파손, 절도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음주, 흡연, 가출, 지위비행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학업중단이나 더 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6]. 최근 청소년 일탈행위의 특징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연령대와 일탈행위 자체가 굉장히 과감해지고 일탈의 동기는 자기중심적이면서 매우 단순하고 쾌락적인 행동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소년 일탈행위는 얼마든지 예방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한 상황에 대하여 공동의 작업으로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을 지지하고 개선한다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7].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인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입시경쟁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부가된 학업 스트레스를 누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내·외적 부적응 증상을 서구문화권의 청소년들보다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8]. 지각된 스트레스는 단순히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양적인 스트레스와는 달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9], 이는 부적 정서 및 불안을 상승시키고 부적응적

대처의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10] 청소년이 경험하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11]. 이렇듯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다[12].

한편, 충동성이란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미래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13]. 충동성은 자기 통제력 부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통제력 부족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지는 등 행동상의 결함을 나타낸다[14].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이나 자신의 반응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며, 때때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15]. 이렇듯 청소년의 충동성은 부정적 정서를 행동으로 표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 즉, 일탈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16].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일탈행위 관련 연구는 주로 충동성[2,16], 양성평등의식, 성태도[16], 사회적 지지, 성격유형[3] 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나 지각된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탈행위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고등학생의 일탈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일탈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 정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이 일탈행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8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표본 크기는 160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한 8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9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는 없었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49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2.3.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Cohen, Kamarck & Mermelstein[17]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과 Seo[18]가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지각 스트레스 5문항, 부정적 지각 스트레스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Seo[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2.3.2 충동성

Barratt & White[19]가 개발한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를 Lee[20]가 번안한 한국판 충동성 검사지를 Hwang[16]이 고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충동성 검사는 운동 충동성 척도 8문항, 인지 충동성 척도 6문항, 무계획 충동성 척도 9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wang[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2.3.3 일탈행위

일탈행위는 Lee et. al[21]이 개발한 학교부적응 지표 중 일탈행위 영역을 활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일탈행위,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는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으며, 일탈행위,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rbin Watson으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68.2%였으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68.8%이었으며, 가정형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82.3%가 가정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현재 생활에 67.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 중 54.7%가 친구들에게 인기는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58.3%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 3.2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일탈행위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평균평균점  $2.50 \pm 0.62$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긍정적 지각 스트레스  $2.81 \pm 0.81$ 점, 부정적 지각 스트레스  $2.20 \pm 0.84$ 점이었다. 충동성 평균평균점은  $1.94 \pm 0.41$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운동충동성  $1.61 \pm 0.42$ 점, 인지충동성  $2.21 \pm 0.52$ 점, 무계획

충동성 2.09±0.5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탈행위는 평균평점 1.27±0.40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eligion	Yes	61	31.8
	No	131	68.2
All parents work	Yes	132	68.8
	No	60	31.2
Home economic situation	Good	52	27.1
	Medium	131	68.2
	Bad	9	4.7
Thoughts about home	Stable	158	82.3
	Medium	31	16.1
	Unstable	3	1.6
Current life	Satisfied	130	67.7
	Moderate	53	27.6
	Dissatisfied	9	4.7
	Is popular among friends	72	37.5
School life	usually	105	54.7
	Is not popular	15	7.8
	Satisfied	112	58.3
Deviant Behavior	Moderate	58	30.2
	Dissatisfied	22	11.5

Table 2. Degrees of Perceived stress, Impulsiveness and Deviant Behavior (N=192)

Variables	M±SD
Perceived stress	2.50±0.62
positive perception	2.81±0.81
negative	2.20±0.84
Impulsiveness	1.94±0.41
motor Impulsiveness	1.61±0.42
attentional Impulsiveness	2.21±0.52
non-planing Impulsiveness	2.09±0.52
Deviant Behavior	1.27±0.40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는 가정에 대한 주관적 생각(F=4.50, p=.012), 현재 생활 만족(F=4.14 p=.017), 학교생활 만족(F=20.76,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한 결과, 현재 생활에 '불만족'군이 '만족'군보다 일탈행위가 높았으며, 가정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보통'군, '불안정'군보다 일탈행위가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군이 '만족'군, '보통'

군보다 일탈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Deviant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s
Religion	Yes	1.23±0.39	-0.88 (.380)
	No	1.28±0.41	
All parents work	Yes	1.27±0.41	0.31 (.758)
	No	1.25±0.37	
Home economic situation	Good	1.23±0.44	0.26 (.772)
	Midium	1.28±0.37	
	Bad	1.29±0.59	
Thoughts about home	Stable <sup>a</sup>	1.25±0.39	4.50 (.012)
	Medium <sup>b</sup>	1.28±0.38	
	Unstable <sup>c</sup>	1.93±0.81	
Current life	Satisfied <sup>a</sup>	1.23±0.37	4.14 (.017)
	Moderate <sup>b</sup>	1.31±0.38	
	Dissatisfied <sup>c</sup>	1.60±0.71	
Popular among friends	Is popular	3.58±0.56	0.76 (.467)
	usually	3.27±0.60	
	Is not popular	2.96±0.57	
School life	Satisfied <sup>a</sup>	3.42±0.59	20.76 (<.001)
	Moderate <sup>b</sup>	2.98±0.17	
	Dissatisfied <sup>c</sup>	3.09±0.56	

### 3.4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일탈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탈행위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r=.403, p<.001), 충동성과 양의 상관관계(r=.346, p<.001), 지각된 스트레스와 충동성도 양의 상관관계(r=.547, p<.001)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Deviant Behavior, Perceived stress and Impulsiveness

Variables	Deviant Behavior	perceived stress	Impulsiveness
	r(p)		
Deviant behavior	1		
perceived stress	.403(<.001)	1	
Impulsiveness	.346(<.001)	.547(<.001)	1

### 3.5 대상자의 일탈행위 영향요인

대상자의 특성 중 일탈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현재 생활 만족, 가정에 대한 주관적 생각, 학교생활 만족

을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9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 $\beta=.18, p<.001$ ), 충동성( $\beta=-.16, p=.024$ ), 학교생활 1 ( $\beta=-.45, p=.031$ ), 학교생활 2( $\beta=-.34, p=.002$ )가 일탈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22.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15.21, p<.001$ )(Table 5).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Deviant Behavior in participants

Variables	$\beta$	t	p	Adjusted R2	Dubin Watson
(constant)		5.146	<.001		
Perceived Stress	.176	2.105	<.001		
Impulsiveness	.156	2.049	.024	.229	1.89
School life1 †	-.454	-3.885	.031		
School life2 ‡	-.342	-3.185	.002		
Adjusted R2=.229, F=15.206 p<.001					

† dummy(Moderate, Dissatisfied=0, Satisfied=1)

‡ dummy(Dissatisfied, Satisfied=0, Moderate=1)

####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50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지각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81점, 부정적 지각 스트레스는 2.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1] 2.2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새로운 학교와 친구와의 적응이 필요한 고등학교 1학년이며,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교우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22]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긍정적 지각 스트레스가 높게 확인되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지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교우들과의 관계 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충동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1.94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의 경우 인지충동성 2.21점, 무계획충동성 2.09점, 운동충동성 1.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본 연구와 같은 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평균 2.37점보다 낮았지만 하위영역에서 무계획충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충동성은 중간 이하로 높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든 쉽게 몰두할 수 없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는 일이 없는 인지충동성[23]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청소년기는 절제력이 약하고 기분에 따라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특징은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16;재인용]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인지충동성을 자극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탈행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1.27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인문계고등학생이 실업계고등학생보다 일탈행동이 높았다는 연구결과[24]를 고려해보면 본 연구 대상자가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료수집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시점에서 고등학생의 일탈행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는 가정에 대한 생각, 현재 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고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 일탈행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발생원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획 없는 생활, 가족구성원 간의 믿음 결여, 가정생활에 불안정 등이었다는 선행 연구[25]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도 일탈행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담임교사의 심도깊은 상담과 관심을 통해 일탈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탈행위는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과

유익한 양의 상관관계로 확인되어 선행연구[3]의 결과를 지지해주었다. 충동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이 취약한 환경에 있을 때 비행을 하게 되며[26], 고등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일탈행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3]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지체계 마련을 통하여 일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일탈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15.8%를 차지하였으며, 충동성, 학교생활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22.9%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탈행위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2,2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학교생활에서의 막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친구들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와 부모와 교사의 기대와 요구 등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28]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인 일탈행동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3]. 본 연구 대상자가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임을 감안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입학시부터 스트레스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을 선별하여 상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일탈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탈행위를 방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구체화하여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도구지만 전 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과 Choi의 연구결과[2]와는 같았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전 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16]의 연구결과에서 충동성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충동성은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일탈 행동에 쉽게 노출되게 하므로[16] 추후 고등학생의 일탈 행위 영향요인으로 충동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 일탈행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학교생활이 중요함이 밝혀졌다. 선행연구[29]에서 교사로 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경우 더욱 일탈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일탈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교우관계를 가장 많이 중요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학습의 장소를 넘어 경쟁하는 곳으로 바뀌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어야 할 친구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등 유연하지 못한 교육환경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7].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일탈행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이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 충동성, 학교생활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각된 스트레스가 일탈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이 일탈행위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교사와 학생,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원인을 확인하고 중재하여 일탈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연구 전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연구를 제안하며, 특히 일탈행위 예방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원인 학업스트레스를 포함한 추가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S. Kim,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stress, Self Efficacy, Depression and

- Suicidal Ide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1, pp.203-225, 2009.
- [2] Y. M. Yoon, M. S. Choi, “Affecting Factors of Deviant Behavior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9, No.3, pp.323-331, 2003.
- [3] Y. J. Ji, B. J.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and deviance of high school students as experienced in their daily liv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3, pp.159-183, 2018.  
DOI: <https://doi.org/10.14816/sky.2018.29.3.159>
- [4] K. Akarowhe, “Effects and Remedies to Cultural Shock on the Adolescent Students”, *Sociology International Journal*, Vol.2, No.4, pp.306-309, 2018.  
DOI: <https://doi.org/10.15406/sij.2018.02.00063>
- [5] D. H. Lee, J. H. Lee, A. S. Lee, W. M. Park.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in Middle School Students on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9, No.1, pp.85-205, 2010.
- [6] K. S. Lee. The Effect of the Human Relation Enhancement Program on the Prevention of School Maladjustmen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p.19, 2015.
- [7] S. J. Yang, A Study on the effect of a home background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o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9, 2015.
- [8] M. R. Lee,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enior’s coping strategies used to handle examination stress with levels of depression - In relationships of additional life event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3, No.5, pp.89-98, 1995.
- [9] J. J. Gross., R. A. Thompson,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3-24.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 [10] K.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and mindfulness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5, No.4, pp.617-634, 2010.  
DOI: <https://doi.org/10.17315/kihp.2010.15.4.003>
- [11] H. J. Kim, The relationship among the emotional awareness,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pp.00, 2013.
- [12] K. W. Lee, S. G. Kim,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y pattern on stress solu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juvenile”, *Korea Sport Research*, Vol.16, No.4, pp.775-783, 2005.
- [13] E. Barratt, J. H. Patton,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 (Ed), *Biological based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 J.: Erlbaum, 1983.
- [14] H. H. Kim, “The Effect of Matern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Problem Behavior and Internet Delinquency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3, pp.133-153, 2003.
- [15] J. J. Mann, C. Waternaux, G. L. Haas, K. M. Malone, “Toward a clinic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in psychiatric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6 No.2, pp.181-189, 1999.  
<https://ajp.psychiatryonline.org/doi/epub/10.1176/ajp.156.2.181>
- [16] Y. Y. Hwang, The effects of impulsivity,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on deviant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17] S. Cohen, T. Karmarck, &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s of perceived stress”. *Journal Health Society Behaviors*, Vol.24, No.4, pp.385-396. 1983.  
DOI: <http://dx.doi.org/10.2307/2136404>
- [18] J. H. Park, Y. 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9, No.3, pp.611-629, 2010.
- [19] E. S. Barratt, R. White, “Impulsiveness and anxiety related to medical students’ performance and attitudes” ,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44, No.7, pp.604-607. 1969.
- [20] H. S. Lee, *Impulsiveness test guide*. Seoul: Hankook guidance, 1992.
- [21] G. H. Lee, J. H. Lim, M. G. Jeon, C. N. Park, H. S. Yoon & J. H. Park et al, Development of school maladjustment index to improve school safet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 [22] H. Y. Lee, Study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and the interpersonal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5.
- [23] S. A. Jin, Y. J. Oh, M. G. Choi, “A Study on the Impulsiveness with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5, No.3, pp.211-224, 2006.
- [24] Y. S. An,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of their behavioral feature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1999.
- [25] S. J. Jee, (The) influences of peer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ies on juvenile delinquenc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1.
- [26] E. E. Gorenstein, J. P. Newman,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 new perspective and a model for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Vol.87, pp.301-315, 1980.
- [27] J. H. Park, K. S. Kim, K. H. Kim, G. W. Nam, K. W. Min, S. S. Lee, C. H. Jeong, H. S. Lee, H. J. Lee,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Level of Stress among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8, No.6, pp.971-978, 2013.

- [28] Y. H.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ors and Stress-Coping Styles of Academic and Technical High Schools' Students,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
- [29] Y. S. Park, U. C. Kim,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9, No.1, pp.81-114, 2003.

---

정 경 숙(Kyeong 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중앙

---

오 은 주(Eun Ju Oh)

[종신회원]



- 2006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여성건강증진, 다문화, 간호교육